

[2010 대입]

‘수능 중심’ 맞춤식 전략 세워야

2010학년도 대입은 전형방법이 더욱 다양해졌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입시전략을 세워야 한다. 주요 대학들이 전형에서 수능의 비중을 높이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평소 수능 위주로 공부하되, 학교생활기록부와 논술고사에도 일정 시간을 할애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능 위주 공부하고 학생부 관리

유리한 특별전형 있는지 살펴야

◇가장 유리한 맞춤식 지원전략 짜야 = 2010학년도 각 대학의 입시요강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진 만큼 수험생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분석해 그에 맞는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고2까지의 학생부 성적과 수능 모의고사 성적, 영어를 비롯한 개인 외국어 성적, 수상 경력 등 각종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어느 대학의 어떤 전형에 잘 맞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들 전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있다면 해당 유형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전형요소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면 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그 만큼 커지게 된다고 입시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더욱 중요해진 수능 위주로 공부

해야 = 수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수험생들은 평소 수능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 정원의 절반 정도를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 수능 성적을 지원 기준으로만 삼던 서울대도 2010학년도부터는 2단계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20% 반영한다.

학생부 위주의 수시모집에서도 수능 9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많다. 비슷한 성적의 지원자 사이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평소 수능 위주로 공부하되, 수시모집에 대비해 논술고사에도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 공부하는 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다. 수시모집에 지원하더라도 해당 대학 및 학과에서 수능 최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방식은 한층 다양해지고 전형의 종류도 늘어났다. 또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올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출가분한 표정으로 수험장을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저학력기준 등을 요구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평소 학생부도 철저히 관리해야 = 수시모집에서는 많은 대학이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있고 정시모집도 외형상으로는 아직도 40~50% 정도 학생부를 반영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학생부 반영교과와 학년별 반영비율을 정확히 파악해 학생부 관리에 철저히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특별전형 노려야’ = 대학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 성적 외에도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학생을 선

사 등 대학별고사는 수시모집에서 주로 활용된다.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대부분 논술고사를 시행하고 있고 이 전형요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논술고사에 대비하여 평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 교과영어 논술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출제되며 때문에 교과 공부를 통해서 준비해 된다.

◇‘다양한 특별전형 노려야’ = 대학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 성적 외에도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해 학생을 선

발하는 전형이 많다. 학생부나 수능에 자신이 없지만 다른 유형의 전형에 자신이 있다면 이런 대학을 목표로 준비해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2010학년도에는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 학업 성적 외에도 잠재적인 능력을 찾아서 반영하는 전형을 도입한 대학이 49곳으로 많아졌다.

대상학원 이영덕 평가기사는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시요강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특별전형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 주요 대학 입시요강

서울대, 면접 없애고 수능 성적 20% 반영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0학년도 대부분 대학들의 입학전형 방법은 예년에 비해 한층 다양해졌고 전형의 종류도 늘어났다. 특히 각 대학별로 수험생의 다양한 소질과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서울대 = 정시 2단계에서 면접 20%를 반영했던 전년도와 달리 2010학년도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아예 없애는 대신 수능 성적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 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2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40%, 비교과 10%)와 수능 (20%), 논술(30%)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현재 방식처럼 문제가 주

어지는 면접 및 구술고사는 실시되지 않지만 모집 단위에 따라 통과와 탈락을 가르는 면접이 있을 수 있다.

◇성균관대 = 수시는 학생부 중심으로,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며 수시와 정시의 모집 정원 비율을 6 대 4로 정했다.

수시 2-1 학업우수자전형은 면접고사를 폐지하는 대신 내신성적(교과 80%, 비교과 20%)으로만 선발하며 사법대학과 일부 학과(건축·의상·영상·스포츠)는 면접고사를 시행했다.

◇이화여대 = 수시 2학기 일반전형은 모집 인원의 절반을 논술 80%와 학생부 20%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을 논술 60%와 학생부 40%를 합산해 뽑는다. 논술은 2009 학년도와 동일하게 언어·수리 통합 논술의 형식으로 출제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학생부 40%(사법대는 학생부 35%와 면접 5%)와 수능 60%를 반영한다.

◇한국외대 = 서울캠퍼스는 수시 2-1에서 409명, 수시 2-2에서 389명

을 선발하며 정시 모두 1천 676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은 농수 2-2학기 일반전형 II는 논술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언어와 외국어, 수리, 탐구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한다.

◇한양대 = 수시 2학기는 입학사정관 전형 등 모두 11개 전형에서 입학 정원의 55%를 선발한다. 면접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2-1

학기 모집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확대하며 ‘학업우수자 전형(내신형)’도 전년과 같이 유지된다.

수시 2-2학기 모집은 ‘글로벌한양’ 등 4개 전형으로 치러지며 ‘일반우수자 전형(논술형)’은 논술과 학생부를 각각 50% 반영해 선발하고 모집 인원의 상위 50%는 학생부 20%와 논술 80%로 우선 선발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은 선발하지 않는다. 광주캠퍼스 2 천56명, 여수캠퍼스 56명 등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수능 100% 이상, 80% 이상 전형이 각각 실시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이상, 80% 이상 전형을 실시한다.

◇목포대=전체 정원 1천 985명 중 60.7%인 1천 205명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100% 전형이 있으며, 정시에서는 수능 비율 80% 이상, 50% 이상 전형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순천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조선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

형 2천 776명, 특별전형 751명 등 3천 527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정원 5 천 284명의 66.7%다. 수시에서는 학과별로 학생부 비율 8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전형이, 면접구술고사 20% 이상, 10% 이상 전형이 각각 실시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이상, 80% 이상 전형을 실시한다.

◇목포대=전체 정원 1천 985명 중 60.7%인 1천 205명을 수시에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100% 전형이 있으며, 정시에서는 수능 비율 80% 이상, 50% 이상 전형 등이 실시될 계획이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이 실시된다.

◇전남대=수시모집에서 일반전형 853명, 특별전형 299명 등 총 1천 152명을 선발한다. 전체 2천 14명의 57.2%다. 수시에서 학생부는 60% 이상, 면접구술고사는 20% 이상 반영된다. 정시에서는 수능